

사랑하는 후방선교사 목사님들께,

미국 출발 또는 경유 쿠바행 여행은 제한되어 있으며 관광을 위한 여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외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여 쿠바로 여행하려는 여행객들은 여행 사유, 건강 보험, 여권 및 비자, 귀국 또는 연결 여행 증빙 서류와 관련된 몇 가지 특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쿠바에서 미국 신용카드 및 직불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할 현금을 충분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호텔 또는 환전소에서 미국 달러를 쿠바에서 사용 가능한 페소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쿠바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쿠바해안에 위치한 호텔들과 리조터 프로그램으로 방문이 편리합니다. 토론토 소재 Sunwing 여행사는 Cayo Coco, Cayo Cruz, Cayo Largo, Cayo Santa María, Cienfuegos, Habana, Holguín, Manzanillo de Cuba, Trinidad, Varadero 등 10 여개 해안도시에 항공료 호텔숙식 포함한 리조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자를 포함한 모든 경비가 포함됩니다.

쿠바한인후손들 사는 마을/도시



서부: 아바나 284명, 마탄사스 261명, 까르데나스 291명
중부: 씨에고데아빌라 25명, 까마구이 141명
동부: 마나띠 51명, 홀긴 56명, 마르까네 73명

현재 쿠바에는 1200 여명의 한인후손들이 전국에 산재하며 완전히 쿠바인으로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 월 19 일 캘리포니아 로즈빌, 새크라멘토 위 작은도시, 에서 출발하여 캐나다 토론토를

경유하여 21 일 - 28 일 리조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쿠바 서부 한인후예들 사는 지역 (아바나 깔데나스 마탄사스)을 돌아보고 31 일 로브빌에 왔습니다. 뉴멕시코 알버커키 한미침례교회 윤성렬 목사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쿠바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류, 식품, 가정상비약, 한국식품, 먹거리, 비타민등을 준비하였으며 3 개 지역 아바나 2 명 깔데나스 6 명 마탄사스 5 명 모두 13 명의 한인후예들에게 침례를 배풀었습니다. 침례받은자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 할 시간이 부족함을 어찌리.



상세한 선교일정과 각 도시 사정은 선교소식 다시 전하겠습니다.

미주에서 선교에 동참 할 후방선교사를 초청합니다. 대략적인 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주에서 토론토 항공료 \$1000 내외 항공료가 많이 올랐음 (필수)
- 토론토 - 쿠바 리조터 프로그램(항공료 호텔 숙박료 포함) \$600 - \$1000/1 인—
2 인 \$1200-\$2000 (필수)
- 쿠바한인후예들 방문 차량비 \$500-\$700 (서부 3 개 지역) \$1000 (동부 5 개
지역)—가능하면
- 각 지역 한인후손들 식사비/격려금 \$200 - \$400 (가능하면)

감사와 은혜로, 2023.08.01. 정경석 선교사 드림.